

가이드와 함께 걷는 하기오칸 워킹 투어

하기오칸 가타리베노카이(이야기꾼의 모임) 소속 가이드와 함께 역사 가도 하기오칸의 여러 구간을 걸어봅니다. 본 투어는 자신의 체력과 관심사에 맞게 일정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으며, 일반적으로는 대나무 숲과 신사, 에도 시대(1603~1867)의 상인 가문 등의 경승지 및 문화유산, 사적을 돌아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가이드가 조슈 번(지금의 야마구치 현)의 주요 가도였던 하기오칸의 역사와 자연에 대해 소개합니다. 가장 인기 있는 4개 코스는 북쪽의 하기에서부터 남쪽의 미타지리를 연결하는 53km 가도의 각 구간을 망라합니다. 각 코스의 길이는 2.5km 부터 9km 에 이르며 소요 시간은 약 2 시간~4 시간입니다.

A 코스는 하기의 성하 마을에서 출발하여 1868 년, 막부의 정치적인 권력의 종언과 천황의 주권 회복을 의미하는 역사적인 사건인 메이지 유신의 원동력이 된 수많은 영웅을 배출했던 하기를 찬찬히 둘러보면서 산책을 즐깁니다. B 코스는 아키라기와 사사나미의 옛 거리가 이어진 구간으로 일부 옛날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돌길도 남아 있습니다.

C 코스는 하기오칸 가도 중에서도 가장 가파른 고개를 넘어가는 구간으로 특히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합니다. 지금의 야마구치 시 북단에 위치하는 이 고개는 조슈 번의 번주가 산킨코타이 제도[격년으로 에도(지금의 도쿄)에 머무르게 하는 도쿠가와 막부의 제도]를 수행하고자 에도를 향하는 길에 휴식처로 이용했던 찻집 옛터가 있습니다. D 코스에서는 지금의 호후 시로 진입합니다. D 코스는 10 세기에 창건되어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호후텐만구 신사에서 출발하여 미타지리 항 부근에 있는 조슈 번의 별장인 에이운소까지 이동합니다. 에도로 향하던 조슈 번의 번주와 종자들은 이곳 별장에서 하룻밤을 머문 후 오사카로 출항했습니다.

하기오칸은 1604 년 하기 성이 축성된 후 조슈 번의 번주인 모리 가문에 의해 정비되었습니다. 모리 가문의 영지와 연결하면서 일본해와 세토 내해 연안 간 수송과 거래를 가능케 한 하기오칸을 되돌아보는 코스들을 탐방하다 보면, 야마구치 현의 역사와 에도 시대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.